광산업 첨단제품 한자리에

국제 광산업전 내달 4일 광주 DJ센터서 개막

13개국 120개업체 참가… 광기술 컨퍼런스 함께

국내 유일의 광(光)산업 전시회인 '제7회 국제광산업 전시회(Photonics Korea 2007)'가 다음달 4일부터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광세기 창조'를 주제로 전 세계 13개국 120개 업체가 220개의 부스를 설치,국내외 광산업의 최신 제품을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제7회 국제광기술컨퍼런스'(IPTC 2007)도 함께 열려 세계 광산업 흐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음은 물론 광주가 광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전시품목은 광통신 부품을 비롯해 LED 등 반도체 광원, 광소재부품, 광정보기기, 광학기기 등 400여 품목 수천여점. '삼성전자' 'KT' 'LG 이노텍' 등 대기업들이 광가입자망(FTTH)특별관을 개설해 유비쿼터스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광산업과 의료산업·광산업과 태양광산업·광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을 연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제품들이 대거 출시된다.

'옵테론'의 '광분배기'(대통령상), '케이옵틱스'의 'WDM-PON용 저가형 파장가변 레이저모듈'(국무총리상), '글로벌광통신'의 '드라이 코어 광케이블'(산업자원부장관상) 등 올해 광산업 분야 수상제품도 나온다.

해외에선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12개국 45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중국내 광산업집적화단지인 '무한광밸리'는 12개 부스 규모의 공동관을 만들어 첨단 레이저 관련 기술을 선보인다. 프랑스 'SDS'의 경우 저출력·저소음 광통신 컨버터 제품을 전시하고, 독일 '터모텍 AG'는 최첨단 광정밀계측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회와 함께 열리는 '국제광기술컨퍼런스'(IPTC 2007)에서는 '광자기술과 시장 개척'을 주제로 LED·레이저 등에 대한 국제 광기술·시장동향을 파악하는 자리를 갖는다.

광주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2009년 개최 예정인 '광 엑스포'를 준비하는 한편 '광주 광클러스터'를 세계에 알리고 광기술 고급인력 유인·해외업체 광주투자 촉진·신제품 마케팅·광통신 정보획득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 이번 전시회로 광산업체의 수출촉진은 물론 기술정보 획득과 국제시장 동향에의 접근 등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전남농협 농기계 수리 봉사 농협전남본부 직원들이 29일 화순농협 농기계부품센터에서 고장난 경운기를 수리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농기계부품 수급상황실을 운영, 농기계 고장수리를 해줄 계획이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나주 혁신도시에 호수공원 조성

토공, 면적 20만㎡ 규모

한국토지공사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총면적 52만2천㎡, 호수면적 20만㎡인 호수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토지공사는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동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전체 사업지 729만5천㎡ 중 310만㎡의 시행을 맡았다.

토공은 자체 사업지내에 총면적 52만2천㎡, 호수면적 20만㎡의 인공호수를 조성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호수의 크기는 일산 호수공원(호수면적 33만㎡)에 이어 국내 2번째 규모라고 토공은 설명했다.

토공은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토공은 76만5천㎡ 크기인 1-1 공구의 설계가 마무리돼 다음달 4일 입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아차, 수출 GM대우에 추월 당해

GM대우가 처음으로 국내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 수출물량에서 기아차를 앞섰다.

29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GM대우는 총 48만4천595대의 완성차를 수출해 같은 기간 46만7천806대(국내공장 생산 완성차)를 수출한 기아차를 추월했다.

GM대우가 완성차 수출에서 기아차를 넘어 업계 2위에 올라서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6월까지만 해도 기아차 42만4천323대, GM대우 41만211대로 기아차는 '2위' 자리를 지켰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7월 노조의 임금협상 파업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며 "또한 현재 해외 생산분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생산 완성차의 수출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피오레 팰리스타운' 274세대 분양

대주건설 남구 봉선동에 광주 최초 호텔형 아파트

대주건설은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피오레 팰리스타운' 274세대를 분양한다.

'피오레 팰리스타운'은 광주 최초의 호텔형 아파트로, 158.68㎡(48평A형), 161.29(48평B형)㎡, 178.5㎡(54평형) 등 3개형으로 구성돼 있다. 청소, 다림질, 식사, 세탁 등 호텔 수준의 '하우스키핑' 서비스와 함께 입주민 전용 병원 운영을 통한 의료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봉선동은 제2순환도로 용산 IC와 인접해 있어 광주 도심과 외곽 이동이 용이하다. 특히 인근에 초·중·고등학교와 유명 학원가 등이 밀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E-마트, 남구 문화예술회관, 남구청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도 근거리다.

단지 내에는 모네, 피카소 등 세계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모자이크 타일로 제작한 '길거리 갤러리'가 조성된다. 또 곤충을 테마로 한 놀이터를 비롯, 조각상, 분수, 수석정원 등도 꾸며진다.

견본주택은 30일 봉선동 주월중학교 앞에 개관하며, 추첨을 통해 벤츠 승용차를 경품으로 준다. 문의 062-676-1500.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한민국 최고 전통술 뽑는다

국세청, 내일 주류 품평회

탁주·과실주·약주 3개분야

국세청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술을 뽑는다.

국세청은 31일 산하 기술연구소에서 우수한 전통술을 선정하는 제1회 대한민국 주류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를 비롯해 서울·중부·대전·대구·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은 지역예선을 통해 탁주·과실주·약주 등 3개 분야에서 4개씩, 12점을 이미 선발해 놓아 본선대회격인 이번 품평회에서 총 72점의 전통술이 지역의 자존심을 걸고 술맛 대결을 펼친다.

본선 품평회에서는 국세청 기술연구소가 성분 등을 분석하고 대학교수·소믈리에 등 주류 전문가들이 맛·향·색깔 등 관능심사를 한다. 국세청은 이들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탁주·과실주·약주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금·은·동 3점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통술을 제대로 알리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품평회를 마련했다"며 "금·은·동을 수상하는 전통술에 대한 상금은 없지만 첫 전통술 품평대회에서의 수상사실 등을 상표나 광고 등으로 알릴 수 있어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 강당에서 이번 품평회에서 뽑힌 전통술에 대한 시상식을 하고 시음회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中企 금융지원 늘려 경제 활성화 앞장"

신임 박 현 덕 韓銀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전남의 경제발전과 지역 내 경제교육센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9일 부임한 박현덕(55)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밀착형 연구활동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각종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경동고와 고려대 통계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 ▲경제통계국 조사역 ▲부산본부 과장 ▲감사실 반장 ▲전산정보국 국장 등을 거쳤다. /장필수기자 bungy@